

38. &lt;보기&gt;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lt;보 기&gt;

선생님: 한 단어에서 둘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 이들 간에 순서가 있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 먼저 일어난 음운 변동 결과로 다른 음운 변동이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기도 하지요. 예컨대, ‘찾는’은 [찬는]으로 발음되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비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예요. ㉠~㉣에서 이런 순서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니 ㉠ 자음군 단순화, ㉡ 된소리되기, ㉢ 비음화,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활용해 설명해 봅시다.

- ㉠ 실없네[시럽네]                      ㉡ 깊숙이[깍쭈기]  
 ㉢ 짓밟지[진뺨찌]                      ㉣ 꺾는[깎는]  
 ㉤ 훑고[훑꼬]

학 생: \_\_\_\_\_ [A]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은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네요.  
 ② ㉡은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네요.  
 ③ ㉢은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네요.  
 ④ ㉣은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네요.  
 ⑤ ㉤은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네요.

39. &lt;탐구 활동&gt;의 ㉠~㉣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lt;탐 구 활 동&gt;

차자 표기는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는 것이다. 차자 표기된 한자는 한자의 훈이나 음으로 읽게 된다. 이때 한자의 본뜻이 유지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아래는 이러한 차자 표기 방식들을 ‘水(물-수)’로써 응용해 보인 것이다.

	훈으로 읽음	음으로 읽음
본뜻 유지	예) ‘水’를 ‘물’의 뜻으로 ‘물’로 읽음 ..... ㉠	예) ‘水’를 ‘물’의 뜻으로 ‘수’로 읽음
본뜻 무시	예) ‘水’를 ‘물’의 뜻과 상관 없이 ‘물’로 읽음 .... ㉡	예) ‘水’를 ‘물’의 뜻과 상관 없이 ‘수’로 읽음 .... ㉢

다음 한자(훈-음)를 이용해 차자 표기를 해 보고 그 방식을 설명해 보자.

火(불-화), 土(흙-토), 多(많다-다), 衣(옷-의), 乙(새-을)

예컨대, 고유어 표현 (㉠)의 밑줄 친 부분을 (㉡)로 표기하고 (㉢)(으)로 읽는다면 (㉣)의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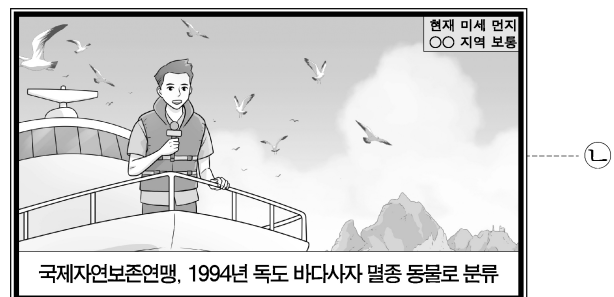
- |                           |   |   |   |
|---------------------------|---|---|---|
| ㉠                         | ㉡ | ㉢ | ㉣ |
| ① 불 <u>빛</u> 이 일다         | 火 | 불 | ㉠ |
| ② 진 <u>흙</u> 이 굳다         | 土 | 흙 | ㉠ |
| ③ 옷 <u>음</u> 이 많 <u>다</u> | 多 | 다 | ㉡ |
| ④ 시 <u>옷</u> 을 적 <u>다</u> | 衣 | 옷 | ㉡ |
| ⑤ 찬 <u>물</u> 을 담 <u>다</u> | 乙 | 을 | ㉢ |

[40~43] 다음은 텔레비전 뉴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시청자 여러분, 독도 바다사자를 아십니까? ㉠ 독도 바다사자는 예전에 독도와 인근 해역에 살았던 바다사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독도 바다사자는 멸종된 지 오래 되어 현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독도 옛 모습 찾기의 일환으로 이 바다사자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있어 지역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 기자입니다.



기자: 저는 지금 독도 인근 해역에 나와 있습니다. ㉡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곳은 독도 바다사자의 주요 서식지이자 번식지였습니다. 하지만 ㉢ 일제 강점기 남획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급격히 줄다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국제자연보존연맹에서는 1994년에 독도 바다사자를 멸종 동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독도 옛 모습 찾기를 위해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관계자: ㉣ 독도 바다사자는 다른 멸종 위기 동물보다 인간과의 충돌 가능성이 크지 않고, 독도 지역은 서식 환경의 적합성 면에서도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독도의 생물 다양성을 고려할 때, 독도 바다사자 복원은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전문가들도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복원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전문가: 독도 바다사자의 경우 동일 개체종이나 동일 개체군으로의 복원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다만, 베링해 등에서 혈연적으로 가까운 개체군을 찾아서 들여오는 방식으로의 복원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독도 바다사자는 독도 해역을 중심으로 베링해 인근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링해 등에서 개체군을 들여와도 문제없이 잘 서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